

中 2 이경준군, 토폴 최연소 만점 화제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미국 아이들 앞에서 오기로 공부했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중 2학년 이경준군이 지난 4월 14일 치러진 토폴(TOEFL) 시험에서 문법·독해·듣기·작문 등 4개 영역에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300점 만점을 받아 국내 최연소 만점기록을 갈아치워 화제가 되고 있다.

1992년 10월 24일생인 이군은 시험 당시 만13세 5개월이었기 때문에 지난 3월 13세 6개월의 나이로 만점을 받아 최연소 토폴 만점자로 알려진 서울 대청중 2학년 박지영양의 기록을 고쳐쓰게 됐다. 이군은 "미국 학교에 다닐 때 '어디서 왔냐'고 묻는 아이들한테 한국에서 왔다고 해도 모르는 아이가 많아 속상했다"며 "앞으로 외국에 한국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발레리나' 양영은, 영국립무용학교 수석 졸업



발레리나 양영은(23)씨가 세계 최고 권위의 무용학교 가운데 하나인 영국왕립무용학교(Royal Academy of Dance)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양씨는 1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RAD 발레지도자학부 졸업식에서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았다고 가족들이 알려졌다.

양씨는 서울예원중학교 재학 중이던 1998년 영국으로 건너가 엘름허스트 무용학교를 마치고 RAD에 진학했다.

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RAD 발레지도자학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이 수석 졸업한 것은 처음이다.

니콜 키드먼-키스 어번 결혼 공식발표



배우 니콜 키드먼과 컨트리가수 키스 어번이 호주에 도착한 뒤 결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키드먼-어번 커플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호주로 돌아오게 돼 매우 기쁘다. 우리는 가족,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고향으로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주 시드니의 메리 매릴로프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피지 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키드먼의 부모는 시드니에 있는 니콜의 집을 찾았으며, 집 주변은 파파라치의 접근을 막기 위해 엄중 경비가 행해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 '서봉의학상' 수상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순환기내과·사진 왼쪽에서 4번째)가 20일 전남대의대 덕재홀에서 제4회 서봉의학상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최근 2년간 SCI(Science Citation Index) 등 학술잡지에 발표한 연구논문의 업적을 평가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정 교수는 최근 전남대병원에서 개발한 혈소판 응집억제제를 부착한 스텐트를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시술한 논문을 '미국 심장병학회지'에 발표했다.

서봉의학상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전남대의대에 재직중인 교수(기금교수 및 임상교수 포함)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봉 국영종 명예교수의 후원으로 지난 2002년 제정됐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월드컵과 사람들

■호주-크로아티아 '엇갈린 운명의 선수들'

16강 사활전 '조국과의 한판대결'



〈마크 비두카〉 〈토니 포포비치〉

호주 팀 주장 마크 비두카는 크로아티아 태생 선수다.

지난 1990년대 초 스타플레이어로 호주 체육고등학교 축구팀에서 이름을 날릴 때만 해도 침실의 벽은 온통 크로아티아 축구 선수들의 포스터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고 침대 시트에는 그가 좋아하는 크로아티아 축구 클럽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심지어 호주 청소년 대표로 뛸 때는 호주 팀

호주엔 주장 비두카·포포비치 등 크로아티아 출신 5명

크로아티아엔 세리치·시무니치 등 호주 출신 3명 포진

의 전통적인 유니폼인 초록색과 금색 셔츠를 입고 팔에는 빨간색, 하얀색, 청색 무늬가 들어간 크로아티아의 완장을 끼고 출장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조국 호주를 위해 22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 나선다.

비두카를 비롯, 이날 애국은 운명에 처한 '크로아티아' 출신 호주 대표팀 선수는 조시프 스키프, 필리프 칼라치, 토니 포포비치, 안트 코비치, 제이슨 콜리나 등 5명.

크로아티아 팀도 마찬가지다. 호주에서 나고

자란 '호주' 선수들은 조이 디틀리카, 안트 세리치, 조이 시무니치 등 3명이다.

모두 자신들의 새로운 조국을 위해 공격 최선봉에 나선다는 각오다.

호주는 일본을 3대 1로 이겼으나 브라질에 2대 0으로 패했기 때문에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강호 가운데 하나인 크로아티아에 최소한 패하는 일은 없어야만 하는 처지다.

비두카는 19일 "슈투트가르트 경기장 그라운드에서 서서 두 나라 국가를 차례로 듣게 되면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나는 호주인이기 때문에 상대팀이 누구든



〈안트 세리치〉 〈조이 시무니치〉

관계없이 반드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굳은 결의를 내비쳤다.

어린 시절 멜버른 근교에서 스코코와 함께 축구를 했던 크로아티아 팀의 디틀리카 선수 어머니는 "우리들은 호주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호주와 사귀무를 무척 사랑 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우리들의 조국에 대해서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붉은악마·대~한민국·태극기·치우천왕...

이어령씨 신작 문화코드서 월드컵 현상 진단



붉은색, 악마, 거리응원, 대~한민국, 손뼉문화,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 치우천왕, 히딩크 등.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월드컵 축구 대회다. 이들은 또한 마저 인터넷의 팝업창이 열리 듯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문화현상이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와 다소 이질적으로 보였던 이것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어령(72)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이어령 문화코드(문화사상사 펴냄)'에

서 마저 암호를 해독하듯 이들 코드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치고 있다.

원래 한국의 문화 코드에는 광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광장을 대신한 것은 바로 골목이었다. 골목 문화는 패거리 문화를 낳았고, 심지어 뒷잡이 문화도 낳았다.

하지만 월드컵에서의 거리 응원은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낯선 사람과 함께 춤을 추고 기쁨을 나누는 이벤트에 약한 한국인들은 이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데 어울려 춤 추고 노래

한다.

또 붉은악마의 '대~한민국' 함성소리는 그동안 어색하게 느껴졌던 나라 이름을 자랑스럽고 친근한 것으로 바꿔놓았다.

"대~한민국"은 한국적 리듬으로 변형된 4박자다. 맨 첫 음에 악센트와 길이를 주는 것은 '아리랑'의 '아~리랑'이나 '한오백년'의 "한~많은"과 닮았다.

저자는 월드컵 뿐 아니라 문명전쟁, 정치문화, 한류문화 속에 담긴 코드를 해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영 램퍼드 "슈팅수는 내가 최고인데..."



13개중 골은 한개도 못 넣어 2위 토레스, 12개중 3골 폭발

독일월드컵 32개국 출전 선수 중 슈팅을 가장 많이 때린 선수는 누구일까.

32개국이 조별리그 2차전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슈팅을 가장 많이 때린 선수는 잉글랜드 미드필더 프랭크 램퍼드(첼시).

램퍼드는 2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총 13개(유효 6개)의 슈팅을 날렸다.

하지만 가장 많은 슈팅 수를 기록하고도 골은 한 개도 넣지 못했다.

반면 12개(유효 4개)로 슈팅 수 2위를 기록한 스페인의 신예 스트라이커 페르난도 토레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페널티킥 한 개를 포함해 3골을 폭발하며 득점왕 경쟁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한국에서는 안정환이 5개(유효 2개)로 최고다. 박지성이 4개(유효 2개)로 뒤를 쫓고 있고 이천수와 조재진이 3개씩, 김동진과 이을용이 2개씩의 슈팅을 기록하고 있다.

블래터 FIFA회장 "비디오 판독 도입 안해"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심판의 오심을 없애기 위한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심판 및 선수의 실수 또한 경기의 일부"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블래터 회장은 20일 프랑스 라디오 방송 'RMC'과 인터뷰에서 "비디오 판독을 하느라 경기를 중단시키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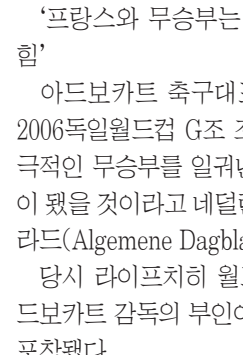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 문제는 19일 오전 열린 한국-프랑스의 독일월드컵 G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프랑스가 1-0으로 앞서던 전반 38분 프랑스 미드필더 파트리크 비에라가 헤딩슛을 한국 수문장 이운재가 가까스로 쳐낸 장면 때문에 다시 불거졌다.

당시 TV중계 화면으로 보면 비에라가 헤딩볼 붉은 골문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심판은 골로 인



정하지 않았다. 한편 블래터 회장은 심판 오심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칩이 내장된 스마트볼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FIFA는 지난해 17세 이하 세계청소년선수권에서 스마트볼을 시범 사용했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도입을 미뤘다.

아드보 "佛과 무승부는 가족의 힘"



'프랑스와 무승부는 덕 아드보카트 감독 가족의 힘'

아드보카트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19일 열린 2006독일월드컵 G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프랑스와 극적인 무승부를 일케낸 데는 가족의 사랑도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네덜란드 일간지 '알게메네 다흐블라드(Algemene Dagblad)'가 20일 보도했다.

당시 라이프치히 월드컵경기장 관중석에서는 아드보카트 감독의 부인이 한국팀을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아드보카트 감독의 딸은 미드필더 이호(울산)의 이름과 등 번호 '17'이 새겨진 붉은 색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채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와 한국을 응원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 ▲최정신(대창운수 전무이사)씨 장남 철호군 손일규씨 장녀 시윤양=24일(토) 오후 1시 오페라하우스 1층 오페라 특실.
▲임우순(세무사)씨 장남 성규군 서길씨씨 2녀 영순양=24일(토)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김강년(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사업소장)씨 차남 도현군 박점동씨 장녀 니영양=25일(일) 오후 1시 명성예식장 특실.

알림

-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 062-223-919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일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동창·동문회

- ▲정읍 호남고 동문회=22일(목) 오후 7시30분 용봉동 큰바다해물탕. 011-9609-6780
▲재광 벌남 35회 동창회(회장 김군재) 모임=23일(금) 오후 7시 갈나무 식당. 266-1823
▲광주 남중(무진중) 21회 동창회

- (회장 오세중) 월례회=23일(금) 오후 7시30분 무진장 해물탕. 375-3331
▲강진계산초교 제 14회 동창회(회장 김상식) 모임=24일(토) 오후 7시 영일식당.016-604-8492
▲제 8회 광주 체육중·고 총동문회 가족 단합 체육대회=25일(일) 오전 10시 모교 운동장 및 체육관. 011-602-6428

모임

- ▲(사)광주시 실내건축협회 월례회=23일(금) 오후 7시 협의회 사무실. 430-1800

종친회

- ▲전주리씨 광주전남 여성이화회(회장 보희) 월례회=22일(목) 오전 11시 광주전남 도지인 회의실 225-

- 5631
▲의성김씨 광주전남 종친회 운영위원회=24일(토) 낮 12시 신성식당. 232-0760

모집

-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자 수 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사무시 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극단 청춘 회원 및 단원 모집='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창작극 활성화를 위한 특별 기획 공연 등 차기 작품 참여자 모집. 20세 이상으로 배우·기획·연출 분야. 7월 9일까지. 문의 430-5257.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수상인명구조원 일반·강사과정 교육생 모집=만 18세 이상 기본연봉 200m 가능. 접수는 26일 오전 10시까지 광주·전남 홈페이지(Http :

//kwangju.redcross.or.kr). 문의 521-0545.

-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홍패션·커피·

- 월드·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공공예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상층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회원 모집=통일 쌀 보내기와 못자리를 비닐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 431-0035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광주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있는 분 525-1391

부음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전)
대표: (062) 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특별분양
☎ (062) 521-1100